



주에서 불법 온라인 포커와 관련된 수년간의 사건.

이 채권은 주정부가 추구하는 상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12월, 켄터키주 대법원은 항소법원 판결을 뒤집고 10여 년 전 주민들이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던 주 공무원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재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주 변호사들은 채권을 취득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앤디 베시어 주지사는 목요일 오후 늦게 주정부가 총 16억 달러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시어는 "이번 사건 판결로 인해 5월 14일까지 첫 번째 1억 달러를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하며, 이 돈은 먼저 주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에스크로 계좌로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회복(노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스타즈 인터랙티브 홀딩스의 모회사인 플러터 엔터테인먼트에 보낸 메시지는 목요일에 즉시 회신되지 않았습니다.

플러터는 이전에 주 대법원의 12월 판결에 대해 미국 대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포커스타즈, 거의 10년 만에 소송 제기

이 사건의 기원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주정부는 켄터키언을 끌어들이 실제 돈으로 게임을 하는 해외 게임 회사들을 위해 140개 이상의 온라인 도메인을 폐쇄하려고 했습니다.

목요일 베시어가 언급했듯이 거의 모든 회사가 웹사이트에서 켄터키 IP 주소를 차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 중 하나는 포커스타즈였습니다.

2012년 켄터키주는 포커스타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2억 9천만 달러 이상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관계자들은 이 돈이 2011년까지 5년 동안 포커스타즈 게임에서 주 주민들이 패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클린 서킷 판사 토마스 윙게이트는 2015년에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

소가 시작되었고, 스타즈 인터랙티브는 채권 금액을 게시해야 했습니다. 항소 법원이 윙게이트의 결정을 뒤집은 후 주정부는 항소했습니다.

손실 복구법에 따라 켄터키주는 3배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억 9천만 달러가 8억 7천만 달러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리 이자로 인해 켄터키주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현재 초기 배상액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카지노사이트](#)

켄터키주, 자산 이전을 원합니다

목요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베시어는 주정부가 단순한 돈 이상을 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온라인카지노](#)

우리는 포커스타즈의 상표를 새로운 회사로 이전하는 것을 사기 양도로 선언하고 프랭클린 순회 법원이 거래를 무효화할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주지사는 말했습니다.[카지노사이트](#)

목요일, 렉싱턴 헤럴드 리더는 주 변호사들이 이번 주 법정에서 포커스타즈와 플러터가 귀중한 자산을 이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이 상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무디스는 켄터키 대법원 판결로 인해 플러터가 대출 기관 및 채권자와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파워볼사이트](#)

플러터는 항소를 고려하고 있지만, 주정부에 지불하는 금액은 현재 상금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기간 동안 켄터키 플레이어의 포커스타즈 총 게임 수익은 약 1,8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슬롯사이트](#)